

72시간의 강렬한 화염(火炎)

| 정성채 대구 동양당 한의원장 |

이 과정을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달마님과 풀라님 그리고 조직자 이원규 대표와 과정에 함께한 참여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다음은 얼마 전 함양에서 있었던 72시간의 각성 인텐시브Awakening Intensive 과정에서 얻은 경험에 관한 나의 개인적 솔회이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일어난 사실에 대한 낱말의 보고가 아니라, 그 시간 이후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신의 느낌을 총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간의 수식적 서술이나 인용이 섞이게 된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깨달음에 관한 한, 개인적 진실은 논리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 무릇 개체적 인간끼리 무엇인가 자기가 얻은 것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나 기억의 재편보다도 나의 느낌과 이미지를 그리듯이 표현하는 편이 훨씬 직접적이고 통시적이고 믿을 만한 경우가 있다.

무엇이 일어나는가?

한 존재가 한 존재 앞에 앉아 있다. 한 존재에게 앞의 존재는 단지 지켜보는 눈동자로만 존재한다. 앞의 존재가 묻는다.

“당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Who is in ?”

그 질문은 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말로서 전달되지 않는다. 그것은 눈동자의 빈 공간으로 제기된다. 그것은 이미 한 존재 안에서 영겁 동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지금에 와서 말로 언표된 것뿐이다. 한 존재는 그 질문을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간다.

내면화된 그 질문은, 바람을 탄 하나의 불꽃과도 같이, 그의 내면의 대지에 접화된다. 그 불은 이내 들불로 번져간다. 매번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한 존재가 대답한다. 그 대답 또한 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말로서 전달되지 않는다.

그것은 눈동자의 빈 공간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때로는 노도처럼, 때로는 구름처럼, 하나의 바라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처음에는 거칠고 격정적이지만, 그 대답은 점차 섬세하고 중성적이 된다. 그것은 때로는 가 닿을 바닷도 없고 고개를 내밀 수면도 없는 임사(臨死)의 진공이 된다.

노도와 노도 사이에 공간이 있다. 구름과 구름 사이에 하늘이 있다. 공간은 점점 커진다. 마치 평생처럼 긴 시간의 뒤에, 한 존재는 문득 대답한다.

그 대답은 원색의 동요와도 같다.

“시냇물은 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개지 한들한들
피꼬리는 피꿀피꿀...”

그 대답은 쉽고 명랑하고 분명하다. 노래로, 웃음으로, 혹은 무엇으로, 한 존재는 자신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 그 때의 이름을 봄이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고향이라 한다.

당신과 공간은 하나

나는 앉아 있다. 어디에? 여기 이 공간에? 언어와 몸 사이에? 느낌과 더불어?
모든 것의 안에?

“가없는 편재(遍在)의 아름다움...”

무슨 소리!

나는 보고 있다. 무엇을? 지금 이 공간을? 자신의 존재 자체 혹은 그
테두리를? 나라는 개념, 어떤 지각의 부피를?

“즉시(卽是)의 이 느낌...”

무슨 소리!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나는 어느 방 안에서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의 앞에 앉아 있다.
서로에게 서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몸짓을 잃었다. 서로에게 서로는 의미를 잃는다. 남은 것은 오로지, 대상으로서의
나, 어떤 고립뿐이다. 고립을 얻은 자, 부여된 시공간에서 자유할지니, 그 자유는
오로지 눈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눈은 어원을 갖지 않는 동사다. 눈은 순간에
모든 것에 대하여 열린다.

토마스 수녀님은 말했다.

“눈은 가장 아름답다.”

씨눈같이, 첫눈송이같이, 샷별눈같이, 눈은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보는
자나, 못 보는 자나, 눈은 영원을 깨닫는 궁극의 순간이다. 너는 하나의 거울,
하나의 공간이 된다. 나는 하나의 바라봄, 하나의 대답이 된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공간이 있다.
인간은 무엇을
마주함으로 人間 곧
'사람 사이'가 된다.
인간의 품사는 동사다.
'너'와 '나'는 마주하여
나의 존재, 너의 기능을
얻는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이'에서 실종한다. 나에게 무엇이 되는 순간, 너에게 무엇으로 있는 순간, 그
무엇을 무엇으론가 이름 하는 순간, 인간은 존재와 의미와 당위 속에 휩쓸려
실종한다. 나의 안과 나의 밖,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공간이 있다.

나는 공간을 본다.

공간이 점점 커지며, 나는 비틀거린다. 물질세계가 이름들과 함께 공간
속에서 일그러진다. 세계는 끊임없는 물음 앞에서 갑자기 형체화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와 너, 나와 그것은 함께 실종된다. 이름은 동사이고, 실종은 동사이며,
둘은 동의어다.

나는 본다.

나는 구렁에 빠진다. 동공의 블랙홀 속에서 세상을 뒤덮는 아득한 어둠의
혼돈이 시작된다. 끝도 없는 나락의 무중력으로부터 나는 자유라는 공포를
얻는다. 공포는 동사다. 허우적대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마지막 개념이며,
그것은 어둠이며, 그것은 순간이다. 질식하는 자와 같이, 익사직전의 사람같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불쑥 표면으로 솟아올라 숨을 헉헉거린다.

나는 다시 잠긴다...

나는 놓는다. 이제 그 놓음의 과정은 예견되고, 결정되고, 집행되며,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중력을 잃고 지남력이 해체되고 존재의 주체, 인식의 주체를 잃는다. 나는 죽는다. 죽음은 과정이다. 나는 본다.

그러다 별안간 나는 ‘그것’을 본다.

나, 너, 모든 것의 있음...

나는 깨어난다.

모든 존재, 모든 개념, 모든 의미가 새 맛과 새 색깔을 띠며 살아난다. 삶이 살아나 현재형, 진행형, 긍정형의 동사가 된다. 존재가 춤과 노래를 회복한다. 나는 드디어 드러나 웃는다.

봄

함양 산골에 봄이 왔다. 봄은 동사다. 본다고 해서 봄이다.

온 천지에 들꽃이 피어나고 언덕들은 어느덧 연녹색 풀들로 덮여 간다.

저 누군가의 시처럼 봄은 고양이와 같고, 먼 산의 눈은 패잔병처럼 물러선다.

작은 마을을 둘러싼 웅장한 노송들의 솔가지가 문득 흔들린다.

바람이 분다.

바람은 하늘과 대지를 스치고 흔들어 바람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봄의 들판은 꽃씨를 품은 봄바람에 닿자마자 꽃의 화염에 휩싸인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